

# 주간 통일정세

2016-26

## Contents

###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6.25	北, 6.25 맞아 '반미투쟁' 선동...자주권 침해시 불소나기(연합뉴스)
		北, 7월3일 전략군절 지정...민음직한 핵무장력(연합뉴스)
	6.26	北, 곳곳에 김일성·김정일 기념탑 건립(자유아시아방송)
	6.27	北 최고인민회의 29일 개막...김정은 유일영도체제 완성(연합뉴스)
		北 조선우주협회 출범...평화적 우주개발 목적 주장(연합뉴스)
	6.28	北 '서울점령 66주년' 선전..."현대전의 모범" 주장(연합뉴스)
	6.29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셀프 대관식'...유일영도체제 완결(연합뉴스)
		日 언론 "北 김정은, 국방위 폐지로 부친 탈과 조부 닳기 강화"(연합뉴스)
		北 노동신문, 대북제재 이후 공격적 어휘 사용 늘어(연합뉴스)
	6.30	'최고수위' 北 김정은 직함은...노동당위원장·국무위원장 등 9개(연합뉴스)
		北 김정은, 최고인민회의서 조는 장면 포착(연합뉴스)
		北 국가 최고기관 '국무위원회' 누가 포진했나(연합뉴스)
		北 김여정, 최고인민회의 참석 확인...대의원 가능성(연합뉴스)
		北, 평양거리서 화성-10 발사 관계자 열렬 환대(연합뉴스)
北 개정헌법 살펴보니...최고영도자 김정은 권력집중에 초점(연합뉴스)		
北 최고인민회의서 조평통 국가기구로 재편...서기국은 폐지(연합뉴스)		
7.1	선군정치 상징 北 국방위원회, 44년 만에 역사 속으로(연합뉴스)	
	北 김정은, 쿠바특사 일행 접견...친선관계 더욱 발전(연합뉴스)	
	北 김정은, 북중친선 발전 용의...시진핑에 공산당 창건 축전(연합뉴스)	
경제	6.26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역사적 사변...충성 강조(연합뉴스)
		최근 북한서 달러 위조지폐 잇따라 발견...정밀 제작(연합뉴스)
	北, 외국산 경비행기 2대 관광산업에 활용 계획(연합뉴스)	
	6.27	탈북자단체, 평양 부근 공장서 중위안화 위폐 대량 제조(연합뉴스)
	6.28	北, 최고인민회의 앞두고 '경제발전 5개년 전략' 강조(연합뉴스)
		유엔 제재 北 선박들, 중국 근해서 포착(연합뉴스)
		北 외화벌이 수단 건강보조식품, 알고보니 중금속 투성이(연합뉴스)
6.29	中 랴오닝성, 대북제재 국면서 북중경협 추진(연합뉴스)	
	中 지린성, 북중교역 기반시설 확충에 박차(자유아시아방송)	

		대북제재 속 中북한식당 손님 급감·북중집경서 반복정서 확산(연합뉴스) 北, 평양 미립승마장 옆에 경비행장 신축·관광산업 용도인듯(연합뉴스) 북한 中 지방정부 경제교류, 대북제재에도 순항(연합뉴스)
	6.30	北최고인민회의, 무작정 인민생활 향상·경제목표치 제시 못해(연합뉴스) 북한 사금융, 송금시스템까지 갖춘 시장으로 발전(연합뉴스)
	7.1	北, 중국서 탄광용 양수설비 대량 수입(자유아시아방송) CSIS “중국, 안보리 새 대북제재 발효 전 대북교역 제한”(연합뉴스) 국정원 “北, 中에 올해 어업조업권 팔아 3천만弗 수입”(연합뉴스)
사회 문화	6.27	北, 군부대 부식용 산나물 채취에 학생까지 동원(자유아시아방송)
	6.28	北 려명거리 건설 자재난..‘냄비·부지깅이 내라’ 독촉(연합뉴스)
	6.25	北외무성 국장, 美침략위협 맞서 핵 강화조치 계속 취할 것(연합뉴스) 北신문, 제2의 6·25전쟁시 종착점은 미국 멸망(연합뉴스) 北, 안보리 언론성명은 미국의 조작품 주장(연합뉴스) 北 외무성, 노르웨이 대사와 ‘한반도 정세’ 논의(연합뉴스)
	6.27	美 北무수단 발사 이후 U-2S 대북정찰 횟수 늘려(연합뉴스) 美 하원의원, 北과 미군유해 발굴 협력 결의안 발의(연합뉴스) 北, 中 지방정부에 단둥~개성 고속도로 공동건설 제안(연합뉴스) 北, 적대세력들이 국제금융감독기구 악용해 대북제재 주장(연합뉴스) 北, 유럽의 한국군에 대한 무기수출 비난(연합뉴스) 北, 1만명 규모 ‘사이버전력사령부’ 신설중(연합뉴스)
외교 국방	6.28	美 국방부, 무수단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확인·성공 평가 삼가(연합뉴스) 北 정세통보모임 조직·美 한반도 정세 긴장 근원(연합뉴스) 中, 제재 이행보고서 안보리에 제출·제재 이행의지 평가(연합뉴스) 北 군사교관 우간다서 올해 철수·韓이 군경 훈련임무(연합뉴스) 쿠바 라울 카스트로 특사 방북·김정은 면담 가능성(연합뉴스) 北, 서해NLL 전투함에 미국산 ‘개틀링 기관총’ 탑재했다(연합뉴스)
	6.29	시진핑, 북한의 핵보유 병진노선 인정하지 않는다(연합뉴스) 캄보디아 “북한과 교류협력, 유엔제재 맞게 조정”(연합뉴스) 北, 고립탈피 안간힘·방북 쿠바특사 면담에 지도부 총출동(연합뉴스)
	7.1	中대북제재 이행보고서는 원론적내용·이행성과는 인당겨(연합뉴스) 유엔, 대북제재 토론회·‘효과적 제재’ 회원국 협조요청(연합뉴스) 나미비아 정부, 안보리 결의위반 논란 대북거래 중단(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2016. 6. 29.

- **北김정은, 국무위원장 ‘셀프 대관식’…유일영도체제 완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기존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국가직에 오르면서 이 직책의 의미와 향후 권력운용 방식에 관심이 쏠림
  - 김 위원장은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개정된 헌법 수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에서 명칭이 변경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됨.
  - 북한 사장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일단 국무위원회라는 조직은 (북한에선)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위가 폐지된 것인지 아니면 이름만 바꿨는지는 추가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함.
- **日언론 “北김정은, 국방위 폐지로 부친 탈피·조부 닮기 강화”(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29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가 최고위직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신설)으로 취임한데 대해 본인의 권위와 구심력을 더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함.
  - NHK는 “지난달 노동당 위원장에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국가 기관을 이끄는 포스트도 신설해 스스로 취임함으로써 기일층 권위 부여를 도모하고 구심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TV아사히는 종전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대체한 이번 최고인민회의 결정에 대해 당 중심의 국가운영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함.

2016. 6. 30.

- **‘최고수위’ 北김정은 직함은…노동당위원장·국무위원장 등 9개(연합뉴스)**
  -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통해 ‘국무위원장’에 추대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쓰고 있는 ‘감투’는 모두 9개임.
  - 30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제의와 대의원들의 지지로 ‘공화국(국가) 최고수위’인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됨.
  - 김정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인 2011년 12월 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최고사령관’에 임명됐고, 이듬해 4월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 ‘당 중앙군사위원장’,

‘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에 올랐다. 이어 같은 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된 바 있음.

■ **北 김정은, 최고인민회의서 조는 장면 포착(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 진행 중 주석단에서 조는 듯한 장면이 30일 포착됨.
- 전날 조선중앙TV에서 방영한 약 25분 분량의 최고인민회의 요약 녹화중계를 보면 김정은은 책상 위에 있는 자료를 넘긴 직후 눈을 감고 약 5초간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음. 카메라가 황급히 앵글을 참관객들에게 돌렸지만, 영상 편집 과정에서 실수로 해당 장면이 전파를 타게 된 것으로 보임.
- 앞서 김정은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자신이 주재하는 회의 석상에서 졸았다며 불만을 표출, 지시 불이행과 태만 등의 사유와 엮어 그를 지난해 4월 30일 불경·불충죄로 공개 처형했다고 우리 국가정보원이 밝힌 바 있음.

2016. 7. 1.

■ **北 김정은, 쿠비특사 일행 접견…친선관계 더욱 발전(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방북 중인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특사 일행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1일 보도함.
- 이들 매체는 김 위원장이 쿠비특사 살비도르 발데스 메사 국가평의회 부의장을 만나 카스트로 의장의 재선을 축하하며 “이번 방문은 조선과 쿠바 두 당, 두 나라 관계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고 전함.
- 이어 회담은 친선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들이 진지하게 교환됐다고 덧붙였다.

■ **北 김정은, 북중친선 발전 용의…시진핑에 공산당 창건 축전(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중국 공산당 창건 95돌 기념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중국 공산당 창건 95돌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귀 당의 전체 당원들과 중국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며 “중국 공산당은 장구한 기간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반동들을 반대하는 중국 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영도하여 사회주의 새 중국을 일떠 세웠습니다”고 말함.
- 이어 “오늘 중국 공산당은 당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며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중국 인민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바란다”고 밝힘.

- 또 “우리는 중국 동지들과 함께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중(북중)친선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킴으로써 두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추동하며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6. 30.

### ■ 北 국가 최고기관 ‘국무위원회’ 누가 포진했나(연합뉴스)

-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국가 최고 기구로 결정한 ‘국무위원회’에는 ‘최고 수위’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정점으로 북한의 당·정·군 실세들이 포진함.
- 기존 ‘선군정치’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국방위원회를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맞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풀이됨.
-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이외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가 각각 부위원장을 맡게 됨.
- 이들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 선전담당 김기남을 비롯해 군수공업 담당 리만간·대남 담당 김영철·국제 담당 리수용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임.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철과 리수용, 리용호 등이 포함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회는 국가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일종의 정책 심의, 집행, 감독 기능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함.

### ■ 北김여정, 최고인민회의 참석 확인…대의원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지난 2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공식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북한 매체 사진을 통해 확인됨.
- 연합뉴스가 확인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30일 자 2면에 실린 3장의 사진 중 하단 오른쪽 사진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머리를 뒤로 묶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앉아 신분증을 들어 보이는 장면이 포착됨.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여정이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했는지, 방청객 자격으



로 참석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대의원 여부를 떠나 김영정이 제7차 노동당대회 이후 실세로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말함.

■ **北, 평양거리서 화성-10 발사 관계자 열렬 환대(연합뉴스)**

-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화성-10) 시험발사 관계자들이 지난 25~29일 평양에서 열렬한 축하와 환대를 받았다고 노동신문 등이 30일 보도함.
- 노동신문은 “25일 ‘화성-10’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을 맞이하는 평양은 축하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평양체육관으로부터 보통문거리, 만수대거리, 옥류교 대학거리 등 수도의 거리들에 떨쳐나와 위훈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고 전함.
- 시험발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지난 29일(보도일 기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함.

다. 공식행사

2016. 6. 27.

■ **北 최고인민회의 29일 개막…김정은 유일영도체제 완성(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유일 영도체제’, 즉 1인 독재체제 구축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고인민회의가 제7차 대회 이후 50여만인 오는 29일 개막함.
-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지난달 6~9일 열린 7차 당대회 결정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각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임.
- 김정은은 자신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된 12기 5차 행사를 시작으로 네 차례 연달아 참석했으나, 최근 열린 13기 2차와 3차(2015년 4월) 행사는 불참함.

2016. 6. 30.

■ **北 개정헌법 살펴보니…‘최고영도자’ 김정은 권력집중에 초점(연합뉴스)**

-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개정헌법 ‘사회주의 헌법’은 노동당에 이어 국가의 ‘최고수위’에 추대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의 권력을 강화한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무엇보다 북한의 개정 헌법은 국방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무위원회’가 새 국가기구로 신설되고 김정은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인 국무위원장에 추대됨에 따라 국무위원회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춤.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국방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면서 위원장 권한도 최고영도자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 전반 정책을 지도할 수 있는 위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재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6. 25.

### ■ 北, 6·25 맞아 ‘반미투쟁’ 선동·자주권 침해시 불소나기(연합뉴스)

- 북한은 6·25전쟁 66주년인 25일 군중대회를 열고 ‘반미투쟁’을 선동하며 핵·경제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주장함.
-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는 이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 및 군중시위(민간 퍼레이드)를 녹화 중계함.
- 이날 행사에는 박봉주, 최룡해, 최태복, 양형섭, 김기남, 김평해, 리수용, 로두철, 김영철, 리용호, 김수길 등 북한의 당·정·군 간부들이 총출동함.

### ■ 北, 7월3일 전략군절 지정...민음직한 핵무장력(연합뉴스)

- 북한이 7월3일을 미사일 부대를 총괄하는 ‘전략군’의 명절로 정함.
-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7월3일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략군절로 한다”고 보도함. 이어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전함.
- 북한의 이런 태도는 지난 22일 감행한 무수단 탄도미사일(화성-10) 시험발사 성공을 과시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내부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2016. 6. 26.

### ■ 北, 곳곳에 김일성·김정일 기념탑 건립(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전국에 걸쳐 지속적으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기념탑을 세우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맬빈 연구원은 RFA에 “룡성구역의 제2차 연과학원에 최근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기념탑이 건립된 이후 국방종합대학과 새로 지어질 김 부자의 박물관 앞에도 탑이 세워진다”고 말함.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전국에 걸쳐 250개 이상의 김일성·김정일 기념탑이 세워졌고, 약 35개의 김정일 동상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함.



2016. 6. 27.

■ **北 조선우주협회 출범…평화적 우주개발 목적 주장(연합뉴스)**

-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우주기술 응용 분야의 과학자기술자들과 대학교수, 연구사들로 망라된 민간단체 조선우주협회의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조선우주협회 위원장인 리원철 김책공업종합대학 부총장은 27일 “국내외에서의 활발한 학술교류로 인류 공동의 재부인 우주공간의 평화적 개발과 리용(이용)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평등과 호혜, 호상 보완의 원칙에서 우주 관련 국제기구들, 여러 나라의 항공우주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북한이 우주협회를 출범시킨 목적은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장거리미사일 이용에 대한 비난 등을 피해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됨.

2016. 6. 30.

■ **北 최고인민회의서 조평통 국가기구로 재편…서기국은 폐지(연합뉴스)**

- 북한이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통해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을 폐지하고 조평통을 국가기구로 재편함.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움에 대하여가 채택되었다’면서 “결정에 의하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을 없앤다”고 보도함.
- 조평통은 우리 측에서 주요 사건이 있거나 새로운 정책이 제시될 때마다 ‘서기국 보도’를 발표하는 등 북한 측의 반응과 입장을 대변했었음.

■ **선군정치 상징 北국방위원회, 44년 만에 역사 속으로(연합뉴스)**

- 선군정치의 상징으로 한때 최고 국가기관으로 군림했던 북한 국방위원회가 4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짐.
- 북한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국무위원회를 신설함.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30일 “김정은은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의 정상화를 선언했는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호칭은 당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미지와 배치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국무위원회로 정리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함.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6. 28.

### ■ 北 ‘서울점령 66주년’ 선전…“현대전의 모범” 주장(연합뉴스)

- 북한이 한국전쟁 중 서울 점령(1950년 6월 28일) 66주년을 맞아 당시 펼쳤던 작전을 ‘현대전의 모범’이라고 선전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으로 원썩(원수)의 아성을 짓부신(짓부순) 강철의 영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을 전쟁개시 3일 만에 해방한 이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독창적인 전법을 훌륭히 보여준 현대전의 빛나는 모범”이라고 보도함.
- 그러면서 신문은 “북한은 미제가 핵을 저들의 독점물로 여기며 핵으로 위협공갈하던 시대를 영원히 종식시켰으며 이제는 우리의 핵억제력이 미국의 숨통을 조이는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올랐다”고 선전함.

2016. 6. 29.

### ■ 北 노동신문, 대북제재 이후 공격적 어휘 사용 늘어(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전쟁’이나 ‘투쟁’ 같은 공격적 어휘를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함.
- VOA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8일까지 발행된 노동신문을 분석한 결과 ‘전쟁’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기사 건수는 지난 3월에만 294건으로 앞선 달의 169건에 비해 대폭 늘었음. ‘투쟁’이라는 단어 역시 지난 2월 346건에서 3월 486건으로 100건 이상 늘어남.
- ‘미제(미국)’와 ‘남조선(한국)’이 언급된 기사 건수도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증가함. ‘미제’를 사용한 기사는 99건에서 223건으로, ‘남조선’을 포함한 기사 역시 124건에서 240건으로 급증함. 한국을 비난하는 표현인 ‘괴뢰’ 역시 76건에서 218건으로 사용빈도가 올라감.

2016. 7. 1.

### ■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역사적 사변…충성 강조(연합뉴스)

- 북한은 1일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추대를 ‘역사적 사변’으로 규정하며 그를 향한 절대적인 충성을 촉구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전당, 전군,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원수님의 명령과 지시를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 기풍을 확립해야 한다”고 독려함.
- 신문은 이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라며 “김정은 동지를 공화국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것은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 완성해나가는 데서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고 규정함.

## 2. 경제

### 가. 정책 동향

2016. 6. 28.

#### ■ 北, 최고인민회의 앞두고 ‘경제발전 5개년 전략’ 강조(연합뉴스)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28일 지난달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행을 강조함.
- 노동신문은 이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힘을 집중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정수리에 철추를 내리고 경제강국건설의 승전포성을 높이 울리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라고 밝힘.
- 앞서 북한은 지난달 6~9일 열린 제7차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으나 당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음. 이에 따라 당대회 폐막 이후 50여 일 만에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행사에서 세부 목표가 제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2016. 6. 30.

#### ■ 北최고인민회의, 무작정 인민생활 향상…경제목표치 제시 못해(연합뉴스)

- 북한은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통해 인민생활 향상을 중심과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하지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세부 실행방안이나 생산 목표 등이 이번에도 제시되지 않은 데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돌파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아 실제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 박봉주 내각 총리는 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 하고 경제부문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30일 보도함.

-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전방위 대북제재를 받고 있어 목표 달성치를 자신 있게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나. 주요조치

### ■ 특이사항 없음

## 다. 경제 상황

2016. 6. 27.

### ■ 탈북자단체, 평양 부근 공장서 中위안화 위폐 대량 제조(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부근의 평안남도 평성시에 있는 특수인쇄공장(조폐공장)을 통해 중국 위안화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다고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27일 주장함.
- 이 단체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위안화를 대량적으로 찍어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위안화를 많이 쓰는 나라들에 불법 유통해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며 “위폐 공장은 중앙당 재정경리부의 자금 별도대가 지휘하고 있다”고 전함.
- 이 단체는 이어 “김정은의 승인 아래 ‘자금 별도대’는 위안화의 불법 유통을 위해 위안화 위폐를 북한 내 시장에 유통해 위폐의 정교성을 검토하고, 제3국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다음 중국 내 시장에 이 위폐를 대량으로 유통해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3단계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함.

2016. 6. 30.

### ■ 북한 사금융, 송금시스템까지 갖춘 시장으로 발전(연합뉴스)

- 북한의 사금융이 수요와 공급 구조를 갖추고, 송금 시스템까지 보유한 시장으로 발전했다는 분석이 나옴.
- 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는 30일 ‘북한 사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금융은 수요와 공급 구조가 갖춰진 시장으로 발전했다”며 “1980년대 환전에서 1990년대 고리대, 2000년대 대부·투자 기능으로 확장되고 2010년대에는 송금시스템까지 보유했다”고 밝힘.
- 연구센터는 “북한 사금융시장은 더욱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북한 내의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개혁개방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봄.

##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6. 26.

## ■ 최근 북한서 달러 위조지폐 잇따라 발견...정밀 제작(연합뉴스)

- 최근 북한에서 정밀하게 제작된 달러 위조지폐가 잇따라 발견돼 북한 당국의 관련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26일 중국 대북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 홍콩 사업가는 두 달 전 평양을 방문했을 때 사용하고 남은 미화를 홍콩 은행 계좌에 입금했다가 은행 측으로부터 100달러(약 11만7천 원) 지폐 중 일련번호가 'DE'로 시작하는 지폐 한 장이 위폐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음. 은행 측은 홍콩법에 따라 위폐를 관계 당국에 전달했다고 설명함.
- 앞서 중국 환구망(環球網)과 봉황망(鳳凰網) 등은 지난 4월 중국에서 위안화 위폐가 유통되고 있다며 북한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북한 노동당 재정경리부 산하 비밀조직이 평성시 평성특수인쇄공장에서 위폐를 제조해 유통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 ■ 北, 외국산 경비행기 2대 관광산업에 활용 계획(연합뉴스)

- 북한 고려항공이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각각 제조된 경비행기 두 대를 관광산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보도함.
- 26일 NK뉴스에 따르면 이들 경비행기는 미국산 '파이퍼 PA-46 매트릭스'(Piper PA-46 Matrix)와 이탈리아산 '알피 파이오니어 400호'(Alpi Pioneer Suite 400)로, 북한 평양 일대의 관광산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임.
- NK뉴스는 북한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 웹사이트를 인용해 "이 비행기들을 이용한 평양 여행이 약 1천유로(약 130만원)"라고 밝힘.

2016. 6. 28.

## ■ 유엔 제재 北 선박들, 중국 근해서 포착(연합뉴스)

- 유엔의 제재 대상 북한 선박들이 중국 근해에서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함.
- 이들 매체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토대로 이같이 전함.
- 대북제재결의 2270호는 북한의 불법무기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유인 북한 선박 31척에 대해 유엔 회원국의 입항을 금지함.

■ **北 외화벌이 수단 건강보조식품, 알고보니 중금속 투성이(연합뉴스)**

-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판매해온 각종 건강보조식품에서 중금속과 같은 인체 유해 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짐.
- 대북 소식통은 28일 “보건당국이 최근 외국에서 유통 중인 북한산 식·의약품 13종을 수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안궁우황환’을 포함한 10종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인 수은, 비소, 납 등이 기준치의 최대 20만 배 이상 검출됐다”고 밝힘.
- 대북 소식통은 “중금속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드러난 북한산 식·의약품은 국내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인체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북한산 식·의약품 구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함.

■ **中 라오닝성, 대북제재 국면서 북중경협 추진(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석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과 접경한 중국 지방정부가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북중경협을 추진하는 독자 행보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음.
- 28일 라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대외무역경제구과 북중접경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단둥 신개발지 귀면(國門)항에 조성된 ‘중조(中朝 북한과 중국)변민 호시무역구’(이하 호시무역구)가 최근 통관 시운영에 들어감.
- 북중접경의 소식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중국이 참여하고 있으나 중앙의 제재와 관계없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변경을 중심으로 경협을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2016. 6. 29.

■ **中 지린성, 북중교역 기반시설 확충에 박차(자유아시아방송)**

- 중국 지린(吉林)성이 북중교역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현지언론을 인용해 보도함.
- 연변일보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린성은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훈춘(琿春)시의 통상구(세관) 기반시설 건설사업에 총 2억 위안(약 3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 지린성의 이같은 움직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와는 별도로 민생 부문에선 북한과 교역을 계속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RFA는 전함.



■ **대북제재 속 中북한식당 손님 급감...북중접경서 반복정서 확산(연합뉴스)**

-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석달째 이어지면서 북중접경에서 ‘반(反)북한정서’가 확산하고 있음.
- 29일 북중접경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제사회와 중국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 등을 강행하자 북한을 바라보는 상당수 중국인들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뀜.
-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한 소식통은 “이곳에선 전통적인 우방이라는 인식 때문에 조선에 동정적인 여론이 많았으나 핵실험 여파가 직접 닥치고 북한군인의 탈영 및 중국인 살해사건 등으로 꺼리는 느낌이 많아졌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함.

■ **北, 평양 미림승마장 옆에 경비행장 신축...관광산업 용도인 듯(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형 유흥시설로 탈바꿈한 평양 미림승마장의 바로 옆에 경비행장이 신축된 모습이 인공위성에 포착됨.
- 29일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 이미지 서비스인 ‘구글 어스’(Google Earth)에 공개된 위성사진을 보면 폭 20m, 길이 500m의 경비행기용 활주로와 격납고 등의 건물이 들어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진은 지난달 11일 촬영된 것임.
- 이번 신축 경비행장은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외화벌이나 외빈을 초청했을 때 대외 과시용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됨.

■ **북한·中 지방정부 경제교류, 대북제재에도 순항(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두만강을 사이에 둔 중국 지방정부와 북한 간 경제교류는 1년째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남.
- 29일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와 북중접경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훈춘과 상하이, 북한 나진을 잇는 컨테이너 화물운수 정기선 운항이 최근 1주년을 맞음.
- 북중접경의 한 소식통은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 및 동북 노후공업기지 진흥책 추진 등으로 북한 항구 이용전략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대북제재 국면에서 접경 지방정부와 북한의 경협이 예사롭지 않다”고 말함.

2016. 7. 1.

■ **北, 중국서 탄광용 양수설비 대량 수입(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석탄 확보를 위해 침수된 탄광 광산을 복구하고자 중국에서 양수설비를 대량 수입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함.
- 북중 무역 상황에 밝은 한 소식통은 30일 RFA와 통화에서 “최근 북한 중앙기관 무역회사들

- 이 중국 단둥(丹東)을 통해 탄광·광산용 양수동력 설비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고 전함.
- 여기에 북한이 석탄 생산을 늘리려는 것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 상황에서 '민생관련 품목으로 수출이 가능한 석탄을 활용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RFA는 전함.

#### ■ CSIS “중국, 안보리 새 대북제재 발효 전 대북교역 제한”(연합뉴스)

-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되기 전부터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제한했다는 분석 결과가 제기됨.
- 미국 정책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지역을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통해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힘.
- CSIS가 한반도 문제 연구 결과를 주로 공개하기 위해 새로 구성한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 한반도 통일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 제고’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차량과 철도 교통량이 지난 1월에 비해 2월에 두드러지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CSIS는 ‘분단을 넘어’ 웹사이트가 CSIS 한국실과 브레진스키 전략지정학 연구소, 한국국제 교류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이 웹사이트를 통해 동북아 국가들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장기 사안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를 수치화하는 ‘통일 투명성 지수’ 같은 자료를 계속 발표할 계획임.

#### ■ 국정원 “北, 中에 올해 어업조업권 팔아 3천만弗 수입”(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천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올해 어업 조업권을 판매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힘.
- 국정원은 1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원영·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함.
- 올해 판매한 어업 조업권은 평년의 3배에 달하는 1천500여 척에 조업 권리를 준 것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함.
- 특히 국정원은 “북한이 앞으로 작전 배치를 위한 성능 개선과 기술적 대미 사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무수단 미사일) 계속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

### 3.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6. 27.

■ **北, 군부대 부식용 산나물 채취에 학생까지 동원(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성인들 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산나물 채취에 동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함.
- 북한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북한이 올해 초급, 고급 중학교 학생들까지 동원해 고사리를 위주로 고비, 곰취와 같은 산나물을 채취하도록 했다”면서 “지정된 양만큼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주민들과 학생들은 산나물을 시장가로 계산해 현금을 바쳐야 한다”고 말함.
- 또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한때 중단된 산나물 동원이 다시 시작돼 주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RFA에 전함.

2016. 6. 28.

■ **北 려명거리 건설 자재난…‘냄비·부지깥이 내라’ 독촉(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시대 치적사업으로 조성 중인 려명거리 공사에서 자재난을 겪자, 주민들에게 냄비와 연탄집게, 부지깥이 등 살림도구까지 바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28일 보도함.
- 이 매체에 따르면 평안남도 소식통은 통화에서 “최근 평양시 려명거리 건설 관련 지시문이 연이어 하달되고 있다”면서 “지시문은 려명거리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물자지원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힘.
- 려명거리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영흥사거리까지 동서로 난 도로에 건설 중인 새로운 시가지를 일컬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4.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6. 6. 25.

#### ■ 北외무성 국장, 美침략위협 맞서 핵 강화조치 계속 취할 것(연합뉴스)

- 북한의 한성렬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24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기증되는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자위적인 핵역제력 강화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공화국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강조함.
- 한 국장은 이날 미국 AP통신사 평양지국장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최근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앞서 AP통신도 한 국장이 평양 외무성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 위협과 제재, 경제적 압박을 그만해야 한다”며 미국이 제재 등을 풀지 않는 것은 “우리 이미에 총부리를 겨누면서 화해하자고 말하는 꼴”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 北신문, 제2의 6·25전쟁시 종착점은 미국 멸망(연합뉴스)

- 북한은 6·25전쟁 66주년인 25일 미국이 제2의 6·25전쟁을 일으킨다면 그 종착점은 미국의 멸망이 될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6·25전쟁 발발 66주년 논평을 통해 “미제가 지난날의 패전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그 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쓰디쓴 것인가를 똑똑히 알게 해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신문은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전쟁 전야의 초긴장 상태에 놓여있다”면서 “년례적(연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것들을 벗어던지면서 임의의 시각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을 도발하려 하고 있다”고 말함. 이어 “원인 모를 자그마한 사건으로 정세가 일순간에 교전 직전까지 치달아 올랐던 지난해 8월 사태도 미국이 남조선 괴뢰패당과 감행한 ‘을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배경으로 하여 빚어졌다”고 역시 주장을 부림.

#### ■ 北, 안보리 언론성명은 미국의 조작품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채택한 북한의 무수단(북한명 ‘화성-10’)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미국이 만들어낸 조작품’이라고 주장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의 전략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걸고들며 규탄이요, 제재결의 이행이요 하는 공보문

(언론성명)이 발표되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대변인은 또한 “그런데 유엔안보리사회가 그 무슨 공보문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대조선 제재결의 이행을 운운한 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천만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우리 에 대한 제재결의 자체가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강권의 산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 2016. 6. 27.

### ■ 美, 北무수단 발사 이후 U-2S 대북정찰 횡수 늘려(연합뉴스)

- 한미군은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0)을 발사한 이후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대북정찰 횡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짐.
- 27일 주한미군 측에 따르면 오산기지에 있는 미 공군 제5정찰대대 소속 U-2S 정찰기 2대가 지난 22일 이후 매일 대북정찰에 나서고 있음.
- 미측은 통상 U-2S 1대를 출격시키는 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편해 임무를 수행토록 한 것으로 보임.

### ■ 美 하원의원, 北과 미군유해 발굴 협력 결의안 발의(연합뉴스)

- 미국 하원의원들이 6·25전쟁 때 전사한 미군의 유해 발굴을 위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 협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미국 민주당 소속 찰스 랭겔 의원, 존 코니어스 의원, 공화당의 샘 존슨 의원 등 참전용사 출신 하원의원 3명은 지난 24일 ‘한국전쟁 참전 미군 포로와 실종자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VOA는 전함.
- 결의안은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 수는 8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5천300구의 유해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함.

## 2016. 6. 28.

### ■ 美국방부, 무수단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확인...성공 평가 삼가(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22일 오전 발사한 여섯 번째 ‘무수단’ 미사일이 우주공간에 진입했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함. 그러나 이번 미사일이 과연 성공적으로 대기권에 재진입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삼감.
-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번 미사일이 우주공간에 솟아 올랐다가 되돌아와 250마일(402.336km)을 비행

한 것을 지켜봤다”고 밝힘. 미국 정부가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데이비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전체적으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만일 그것(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린 뒤 다시 대기권에 진입해 250마일을 비행한 것)을 의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성공”이라며 “그러나 다섯 차례에 걸친 이전 실험은 모두 실패했다”고 밝히, 성공 여부에 대한 공식 평가를 유보함.
- 데이비스 대변인은 현재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진행 중인 사드 배치 협상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여전히 협상하고 있다”며 “아직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힘.

#### ■ 北 정세정보모임 조직…美, 한반도 정세 긴장 근원(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주재 아시아 국가들의 외교사절을 초청해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면서 한반도 긴장 격화의 근본 원인을 미국에 떠넘김.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외무성은 주조(주북한) 아시아나라 외교대표들을 위하여 최근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정세정보모임을 조직하였다”면서 “최희철 아시아 및 오세안주 총국장이 최근 조선반도 정세와 관련한 공화국의 원칙적 입장(입장)을 통보하였다”고 보도함.
- 이어 “공화국은 앞으로도 병진의 기치를 더욱 역세게 틀어쥐고 선제 핵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다양한 전략공격 무기들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이번 정세정보모임에는 북한주재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란, 인도 대사들과 몽골, 베트남, 파키스탄 임시대리대사들이 참가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2016. 7. 1.

#### ■ 中대북제재 이행보고서는 원론적내용…이행성과는 안담겨(연합뉴스)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측에 제출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
- 1일 중국 소식통들에 따르면 A4 용지로 3~4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며, 구체적인 이행성이나 단속 및 적발 결과 등은 담지 않음.
- 한 관측통은 “이 보고서는 조만간 유엔 안보리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란 점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중국이 원론적인 내용만을 담은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임.



## 나. 북·중 관계

2016. 6. 27.

## ■ 北, 中 지방정부에 단둥~개성 고속도로 공동건설 제안(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에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개성을 잇는 고속도로를 공동 건설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27일 북중접경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은 랴오닝성 정부에 단둥~개성 고속도로 착공식을 오는 7월27일 개최할 것을 제안함.
- 북중접경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북한측이 도로 건설비용을 금광, 석탄 등 광물로 상환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중국 당국이 제안을 수락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2016. 6. 28.

## ■ 中, 제재 이행보고서 안보리에 제출...제재 이행의지 평가(연합뉴스)

-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짐.
- 정부소식통은 28일 연합뉴스에 “중국 측이 최근 대북제재위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힘.
-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이었던 지난 2일을 넘겨 뒤늦게 제출했지만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옴.

2016. 6. 29.

## ■ 시진핑, 북한의 핵보유 병진노선 인정하지 않는다(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29일 “북한의 핵보유 병진 노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함.
- 시 주석은 이 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중국도 북한의 핵보유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함.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모두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흔들리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함.
- 황 총리가 시 주석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날 면담은 약 40분 동안 진행됨.

##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6. 25.

### ■ 北 외무성, 노르웨이 대사와 '한반도 정세' 논의(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부상 등이 신임 노르웨이 대사를 만나 조선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김영남 동지에게 신임장을 봉정한 안 올레 그레브스타드 주조(주북한) 노르웨이 특명전권대사가 20일부터 24일까지 조선 외무성 부상과 인권담당대사 등 해당 일꾼들을 만났다”고 밝힘.
-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을 해소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2016. 6. 27.

### ■ 北, 적대세력들이 국제금융감독기구 악용해 대북제재 주장(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 확대·강화에 대해 “적대세력들이 국제금융감독기구를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함.
- 북한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은 2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에 대한 고립 압살과 제도붕괴를 노린 미국 등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책동은 자금세척방지에 관한 국제금융감독기구를 악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나라와 기구 사이에 좋게 발전하는 협력관계를 차단하고 저들의 대조선금융제재를 세계적인 판도로 확대해보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과 관련된다”고 주장함.

### ■北, 유럽의 한국군에 대한 무기수출 비난(연합뉴스)

-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이 27일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을 비롯해 각종 무기를 우리 군에 수출하는 유럽에 대해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 염원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유럽은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남조선 호전광들에게 각종 전쟁장비를 서슴없이 팔아먹으면서 제 리속(잇속)만을 챙기고 있다”면서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염원)에 대한 로골적인(노골적인) 도전이며 남의 불난 집에 가서 바지 말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라고 주장함.
- 논평은 “지금 이 시각에도 유럽의 많은 군수 회사들은 남조선 당국이 우리에게 대한 선제공격 체계를 완비할 목적 밑에 구입을 요구하는 지하구조물과괴용 미사일(미사일)과 무인공격기, 230mm 방사포를 비롯한 각종 전쟁장비를 들이밀기 위해 남조선의 관계자들과 협상을 벌리고(벌이고) 있다”고 비난함.

2016. 6. 28.

### ■北 군사교관 우간다서 올해 철수…韓이 군경 훈련임무(연합뉴스)

- 우간다에서 올해 북한 군사교관들이 전원 철수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함.
- 이들 매체는 명정철 우간다 주재 북한대사가 현지 언론 ‘데일리 모니터’ 신문과 가진 인터뷰를 인용해 우간다 정부가 북한 군인과 경찰에 대한 훈련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밝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 9항을 통해 군사·준군사 조직·경찰 훈련을 위해 북한으로부터의 훈련관·지문관 초청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간다의 군 정보책임자가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했고, 이달 말에는 우간다의 방위사업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쿠바 라울 카스트로 특사 방북…김정은 면담 가능성(연합뉴스)

-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특사가 28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카스트로 의장의 특사인 살바도르 발테스 메사 국가평의회 부의장은 이날 베이징(北京) 방문 일정을 마친 뒤 평양행 항공편으로 방북했다. 평양 공항에는 리창근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마중을 나옴.
- 쿠바의 특사 방북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5일(한국시간)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 미수교국인 쿠바를 방문한 이후 23일만에 이뤄짐. 쿠바로서는 한국과의 관계 진전을 꾀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려는 포석으로 풀이됨.

2016. 6. 29.

■ **캄보디아 “북한과 교류협력, 유엔제재 맞게 조정”(연합뉴스)**

- 북한의 우방인 캄보디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부합하도록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조정해 나갈 뜻을 밝힘.
- 캄보디아 훈 쉰 총리는 28일(현지시간) 황인무 국방차관을 만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성실한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노력에 지속해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 문제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 부합하도록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국방부가 29일 밝힘.
- 국방부는 “양 차관은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재확인했다”면서 “한반도 및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함.

■ **北, 고립탈피 인간힘…방북 쿠바특사 면담에 지도부 총출동(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잇따른 대북제재로 외교적 고립에 직면한 북한이 전통적 우방국과의 관계를 수호하기 위해 인간힘을 쓰고 있음.
-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쿠바 라울 카스트로 의장 특사로 방북한 살바도르 발데스 메사 국가평의회 부의장을 만나 친선 분위기 속에서 담화했다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이 29일 보도함.
- 이 자리에는 리장근 당 국제부 부부장, 신흥철 외무성 부상,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북한 주재 쿠바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이들 매체는 밝힘. 이에 앞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특사 일행을 위해 베푼 연회에는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외교라인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전함.
- 리수용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쿠바 당과 인민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매체는 덧붙임.

2016. 7. 1.

■ **유엔, 대북제재 토론회…‘효과적 제재’ 회원국 협조요청(연합뉴스)**

- 유엔이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올해 초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점검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 지난 3월 2일 채택된 '2270호 결의'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검색 의무화,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불허, 북한 광물수출 금지 등 역대 최강의 유엔 대북 제재로 평가받음. 그런데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하고, 더 효과적 이행 방안을 찾는 데 논의가 모아짐.

- 유엔 주재 한국, 미국, 일본 대표부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지난 4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진정한 의지는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제 남은 유일한 방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좀 더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들게 함으로써 북한이 핵 정책을 재고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함.

#### ■ 나미비아 정부, 안보리 결의위반 논란 대북거래 중단(연합뉴스)

- 아프리카 나미비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빚었던 북한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 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나미비아 정부는 전날 “안보리 결의 2270호 준수를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한 나미비아 내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및 만수 대해외개발회사(MOP)의 활동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나미비아 정부는 “모든 유엔 제재 결의를 계속 충실히 이행해 갈 것”이라는 의지도 밝힘.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나미비아 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해 왔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함.

##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6. 27.

#### ■ 北, 1만명 규모 ‘사이버전략사령부’ 신설중(연합뉴스)

- 북한이 이르면 오는 10월 10일(노동당 창당일) 이전에 1만 명 규모의 ‘사이버전략사령부’ 창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27일 주장함.
- NK지식인연대는 북한 정찰총국 간부의 정보를 인용해 “김정은 당 위원장이 지난 2013년 11월 11일 제4차 적공일꾼대회에서 3년 안에 세계 최강의 사이버 전력을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을 하달했다”며 이같이 전함.
- NK지식인연대는 “북한이 사이버전략사령부 창설에 3년간이나 공을 들이는 데는 사이버전력에서 핵심인 ‘정보전사인 컴퓨터 영재들을 단시일 내로 확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사이버전략사령부는 사이버 공격, 사이버 정보, 사이버 적공, GPS 교란, 사이버 특수부대(EMP) 병과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주장함.

2016. 6. 28.

■ 北, 서해NLL 전투함에 미국산 '개틀링 기관총' 탑재했다(연합뉴스)

- 북한 해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배치한 초계정 등에 미국산 '개틀링 기관총'을 탑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근접 전투 때 우리 해군에 상당한 인명 피해를 줄 목적으로 노후 기관포를 교체 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군 관계자는 "아울러 북한군은 우리 군이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고속함을 건조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연안전투함에 스텔스 기술 적용을 시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함. 북한은 SO-1급 초계정 등 연안전투함 382척을 운용 중임.



## II 동북아정세

### 1. 한반도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6.27	한미일, 내일 첫 미사일 탐지·추적훈련…北 미사일 방어(연합뉴스)	
	6.28	한미일, 30일 유엔서 안보리 대북제재 토의…이행 다잡기(연합뉴스)	
		신임 주한 미공군사령관에 버거슨 중장 내정(연합뉴스)	
6.30	김홍균 6자수석, 北도발·보상·제도발 악순환 반드시 끊어낼 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6.28	황총리, 북핵문제 등에 중국과 긴밀히 공조(연합뉴스)	
		황총리, 리커창 총리와 회담…다어선 불법조업 단속 요청(연합뉴스)	
	6.29		시진핑, 황총리 면담서 사드 우려…신중한 처리 요구(연합뉴스)
	6.30	방중 황총리, 삼엄한 경계속 北접경 동북3성 첫 방문(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6.28	한·일 해상초계기 함께 난다…다음달 첫 친선비행(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 2. 주변국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6.26		中주도 AIIB 회원 수, 美日주도 ADB 추월 시간문제(연합뉴스)
	6.30	美국무부, 사드는 방어용...중국 우려 일축(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6.30	美국무 부장관, 한-일 핵보유 추진하면 세계는 핵경쟁 돌입(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6.29		러, 美 구축함 지중해서 러 초계함에 위협하게 근접(연합뉴스)
	6.30	미-러, 지중해 해역 양국 군함 대치 싸고 책임 공방(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6.28		日전문가 “中전투기, 자위대기에 공격 동작” 주장(연합뉴스)
	7.1		日 해상자위대 섬 방위 체제 강화...中 겨냥한 듯(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6.25	사흘간 두번 만난 시진핑-푸틴, 무력·제재 반대...미국 겨냥(연합뉴스)	
	6.26	중러 주도 SCO,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국제적 안전·안정 위협(연합뉴스)	
	6.27	시진핑·푸틴, 北핵미사일전략 수용불가...유엔결의 전면 집행(연합뉴스)	

	7.1	中·러, 9월 남중국해 합동훈련 예상...美·日 반응 주목(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일본</b>	<b>러시아</b>	
일러 관계	6.30	日·러 7월 고위급 안보협의...아베, 쿠릴영토협상 의욕(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6. 6. 27.

##### ■ 한미일, 내일 첫 미사일 탐지·추적훈련…北 미사일 방어(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이 28일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할 예정이다.
- 무수단(화성-10)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방어(MD)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훈련은 3국의 이지스함이 각 1척씩 투입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7천600t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참여함.

2016. 6. 28.

##### ■ 한미일, 30일 유엔서 안보리 대북제재 토의…이행 다잡기(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회원국들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다.
- 한미일 3국의 주(駐)유엔 대표부는 오는 30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2270호 결의 이행: 도전과제와 앞으로의 길’을 주제로 공개 브리핑 토의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등이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결의 2270호를 포함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제재 이행 강화를 위한 효과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 신임 주한 미공군사령관에 버거슨 중장 내정(연합뉴스)

- 신임 주한 미 공군 사령관에 토머스 버거슨 미 공군장관실 의회 연락 단장이 내정됐다고 미 국방부가 27일(현지시간) 밝힘.
-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자로 버거슨 국장을 소장에서 중장으로 승진시켜 신임 주한 유엔군/미군 부사령관 겸 제7공군 사령관에 내정하는 한편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함.

- 버거슨 중장은 인준 과정을 통과하면 현 제7공군 사령관인 테런스 오사너시 중장과 교체됨. 오사너시 중장은 대장 승진과 함께 공식인 태평양공군 사령관으로 내정됨.

2016. 6. 30.

■ **김홍균 6자수석, 北도발-보상-재도발 악순환 반드시 끊어낼 것(연합뉴스)**

-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0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우리는(북한의) ‘도발-보상-재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낼 것”이라고 말함.
-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히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축사를 하면서 “다시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 북한 정권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김 본부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관 공관차석, 김현집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함.

나. 한·중 관계

2016. 6. 28.

■ **황총리, 북핵문제 등에 중국과 긴밀히 공조(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중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한의 무수단(화성-10)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과 관련해 중국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황 총리는 28일 베이징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로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중국과 심도있는 협의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힘.
- 황 총리는 또 2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예방,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과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임.

■ **황총리, 리커창 총리와 회담…중어선 불법조업 단속 요청(연합뉴스)**

-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중국 리커창(李克強) 총리에게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함.
- 황 총리는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 어선 불법조업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말함. 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불법조업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총리실은 전함.

2016. 6. 29.

■ **시진핑, 황총리 면담서 사드 우려…신중한 처리 요구(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함.
-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황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중국의 타당한 안보 우려를 신경 써줄 것과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 계획을 “신중하고 적절하게” 다뤄줄 것을 촉구함.
- 시 주석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미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함.

2016. 6. 30.

■ **방중 황총리, 삼엄한 경계속 北접경 동북3성 첫 방문(연합뉴스)**

- 황교안 국무총리의 30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방문은 우리나라 현직 정상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중국 동북 3성중 한 곳을 찾았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임.
- 랴오닝성과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성을 통칭하는 북한 접경지대인 동북 3성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면서도 우리 정상급 인사에게 ‘금단의 땅’으로 통함. 대북 관계의 민감성과 경호 문제 등의 이유, 또 동북 3성에는 조선족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 정책을 민감하게 다루고 있어 그동안 한국 고위 인사의 방문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중국 정부가 예상을 깨고 방문을 허용하면서 이제는 한중 양국관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함.
- 황 총리는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동북 3성은 한중 교류의 역사가 시작된 지역이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지역”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계속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단합된 힘을 모아달라”고 밝힘.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과 랴오닝성, 그리고 한국과 동북 3성의 관계가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다. 한·일 관계**

2016. 6. 28.

■ **한·일 해상초계기 함께 난다…다음달 첫 친선비행(연합뉴스)**



-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4년 만에 해상초계기 작전부대 간 교류행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교류행사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P-3 해상초계기가 친선비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해군은 28일 “제4차 한·일 해상초계기 작전부대 간 교류행사를 7월 4~7일 일본 아즈기 기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5월 4년여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 이후 국방 분야의 협력관계가 회복되고 있음. 친선비행은 한국과 일본의 P-3 해상초계기 각 1대씩이 함께 아즈기 비행장 주변을 2~3시간 정도 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2. 주변국정세

### 가. 미·중 관계

2016. 6. 26.

#### ■ 中주도 AIIB 회원 수, 美·日주도 ADB 추월 시간문제(연합뉴스)

- 중국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가입국 수가 미국과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을 추월하는 것이 시간문제가 됨.
- 26일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진리훤(金立群) AIIB 총재는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AIIB 첫 연례총회에서 24개국이 AIIB 신규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가입한 57개국에 이들 24개국이 더해지면 ADB 가입국(67개 국가 및 지역) 수를 훌쩍 뛰어넘게 됨.
- 진 총재는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24개국에 유럽, 중남미 등의 국가가 포함돼 있다고 소개하고 이들 국가의 신규 가입을 “내년 이른 단계에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6. 6. 30.

#### ■ 美국무부, 사드는 방어용·중국 우려 일축(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우려 표명에 대해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는 순수한 방어 체계”라며 “중국의 전략적 역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미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국 대변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다뤄달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해 연합뉴스에 이같이 논평함.

- 국방부는 전날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미국 측과 배치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보고함.

## 나. 미·일 관계

2016. 6. 30.

### ■ 미국무 장관, 한·일 핵보유 추진하면 세계는 핵경쟁 돌입(연합뉴스)

-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민약(역내)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처럼 선진화된 나라들은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함.
- 블링큰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 동맹의 가치’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미국과 한·일 양국 간 긴밀한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함.
- 그러면서 “미국이 월등한 군사력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움직이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이 혼자서 전쟁을 하지 않는 데는 전략과 전술, 정치적 가치가 담겨 있다”고 말함.

## 다. 미·러 관계

2016. 6. 29.

### ■ 러, 美 구축함 지중해서 러 초계함에 위협하게 근접(연합뉴스)

- 미국 구축함이 지중해에서 러시아 초계함에 60m 거리까지 근접해 항해하며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28일(현지시간) 비난함.
-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지중해 동부 해역에서 9천300t급 미 해군 구축함 ‘그라블리’(Gravelly)가 4천300t급 러시아 초계함 ‘야로슬라브 무드리’에 60~70m 거리까지 근접해 러시아 함정의 진로를 가로지르는 등의 위험한 항해를 함.
- 러시아 초계함은 공해 상에서 일정한 항로와 속도로 항해하면서 미군 구축함에 어떠한 위험한 움직임도 취하지 않았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강조함. 그러면서 미군 구축함의 위험한 항해는 선박 충돌 예방에 관한 국제규정과 미·러 양자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2016. 6. 30.

■ **마러, 지중해 해역 양국 군함 대치 싸고 책임 공방(연합뉴스)**

- 러시아와 미국이 지중해에서 발생한 양국 군함의 위험한 근접 항해 사건을 두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음.
- 30일(현지시간)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미 해군 사령부는 지중해에서 최근 발생한 마러 군함 대치 사건에 자국 구축함이 아닌 러시아 초계함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사령부는 지난 17일 지중해 해역에서 러시아 초계함 '아르슬리브 무드리가'가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을 호위하던 구축함 '그레블리' 등의 항로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비난함.

라. **중·일 관계**

2016. 6. 28.

■ **日전문가 “中전투기, 자위대기에 공격 동작” 주장(연합뉴스)**

- 중국군 전투기가 최근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상대로 공격 동작을 취했다고 자위대 고위직 출신의 일본 군사 전문가가 주장함.
- 28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항공자위대 사령관 경력의 오리타 구니오(織田邦男, 64) 씨가 한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통해 이같이 주장함.
- 오리타는 정확한 시기와 장소를 밝히지 않은 채 중국군 전투기가 동중국해 상공서 긴급출동한 자위대기에 공격 동작을 취했다고 전함. 당시 자위대기는 자기 방어 장치를 사용하며 현장을 떠났다고 오리타는 소개함.

2016. 7. 1.

■ **日 해상자위대 섬 방위 체제 강화…中 겨냥한 듯(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본섬에서 떨어진 외딴 섬들의 방위 강화를 위해 해상자위대의 소해(기뢰제거) 부대를 강화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전함.
- 이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 중국 군함이나 해경국 선박이 자주 나타난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보여 주목됨.
- 신문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이날부터 상륙작전용 수송능력을 갖춘 제1수송대를 소해부대로 편입해 운용에 들어감.

## 마. 중·러 관계

2016. 6. 25.

### ■ 사흘간 두번 만난 시진핑-푸틴, 무력·제재 반대...미국 겨냥(연합뉴스)

- 미국과 그 동맹에 맞서 전략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국제 문제에 대한 무력·제재를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함.
- 관영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을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과 회동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항상 우호적인 회담과 평화적 협상, 정치적 방법으로 국제갈등과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말함.
-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틀 전인 지난 23일에서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동을 하고 양자협력 강화, 국제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 등에서 뜻을 모음.

2016. 6. 26.

### ■ 중·러 주도 SCO,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국제적 안전·안정 위협(연합뉴스)

-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 안보·경제 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가 미사일 방어시스템(MD) 구축에 반대하는 선언을 발표함.
- 2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SCO 회원국 지도자들은 지난 23~2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제16차 정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SCO 성립 15주년 타슈켄트선언'을 채택함.
- 이들은 선언문에서 “개별국가 혹은 국가그룹이 다른 국가의 이익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이고 무제한적으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국제·지역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의 안전을 훼손해 자신의 안전을 실현하려 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2016. 6. 27.

### ■ 시진핑·푸틴, 北핵미사일전략 수용불가...유엔결의 전면 집행(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전략에 반대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함.
- 27일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 베이징(北京)에서 정상회담을 연 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국-러시아 공동성명’을 발표함.

- 두 정상은 “제2차 대전의 주요 전승국이자 유엔 창립국,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2차 대전의 성과를 단호하게 수호하고 2차대전 역사를 부정·왜곡 위조하려는 기도를 반대한다”며 일본의 역사 역주행도 동시에 겨냥함.

## 2016. 7. 1.

### ■ 中·러, 9월 남중국해 합동훈련 예상…美·日 반응 주목(연합뉴스)

- 중국이 오는 9월 남중국해 부근 해역에서 러시아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할 것으로 보여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미국·일본 등의 반응이 주목됨.
-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합동훈련이 실제 이뤄진다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이 점차 커지기 때문임.
-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군사훈련은 동북아와 태평양 해역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 활동에 공동 대응하려는 것으로 해석됨. 아울러 중·러 양국은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공조를 강화를 약속했으며, 이번 훈련은 양국의 유례없는 공조를 상징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바. 일·러 관계

### 2016. 6. 30.

### ■ 日·러 7월 고위급 안보협약…아베, 쿠릴영토협상 의욕(연합뉴스)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러시아와의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협상에 의욕을 보이고 있음.
- 30일 NHK에 의하면 일본과 러시아 정부는 이르면 7월 상순, 모스크바에서 외교부 고위 관리 간에 안보 정책 관련 협의를 하는 방안을 조정 중임. 협의에는 이사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장과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이 나설 것으로 보임.
- 협의의 의제는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서 추진 중인 군사 시설 정비와 북핵·미사일 등 안보 현안이지만 일본 입장에서 쿠릴 4개섬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 시도의 일환으로 보임.

# Ⅲ 북한인권

##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북한인권 국제동향	6.27	北 인권문제, 김정은만 파선 안돼... 김여정도 책임 대상(연합뉴스)
		北 인권문제 이슈로...한미 당국자 포함 '현인그룹' 출범(연합뉴스)
		北 해외노동자, 방화복 없어 용접 중 불에 타 숨지기도(연합뉴스)
	6.29	장에 탈북자, 아프리카서 '북 인권' 강연(자유아시아방송)
		러시아 파견 北 노동자, 하루 20시간 노동 강요당해(연합뉴스)
		폴란드 외교당국자, 北노동자 비자발급 중단...강한 의미 전달(연합뉴스)
6.30	미국무부, 북한 14년째 인신매매 최악국가 지정(연합뉴스)	
	칠레 인권위원장, 김정은 정권 ICC제소해야(자유아시아방송)	
7.1	신임 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오헤아 키타나 내정(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6.30	北, 중국 파견 근로자 사상교육 강화(자유아시아방송)
	7.1	北, 남한 형제와 통화한 주민 2명 간첩으로 체포(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6.26	홍용표 통일부 장관, 실향민 아픔을 통일의 열망으로(연합뉴스)
	6.29	홍용표, 남북은 인권문제...北, 정치적 접근 탈피해야(연합뉴스)
		한국서 북한 억류자 석방 기원 집회 열려(미국의소리)
7.1	탈북자들 "北수용소 가족들 구제해달라" 법원에 청구(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6.27	납북자단체, 北억류 납북자 인신구제 청구낼 것(연합뉴스)
	6.28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中 단둥서 북한 女근로자 8명 탈출(연합뉴스)
대북지원	6.28	北 양강도 아동 영양실조를 최고...3명중 1명(미국의소리)
	6.29	WFP, 北 170만 명에 식량지원 계획 승인(자유아시아방송)
	6.30	올 상반기 국제사회 대북 지원 60% 증가(미국의소리)
	7.1	북한 첫 농아유치원 개원...독일 NGO 지원(미국의소리)



## ■ 주간 동향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6. 27.

#### ■ 北 인권문제, 김정은만 박선 안돼… 김여정도 책임 대상(연합뉴스)

- “북한 인권침해 문제에서 ‘최고지도자’ 김정은만을 궁극적인 책임자로 지명할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물론 그는 여러 범죄의 정점에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지만 이처럼 상징적인 타겟만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레그 스칼라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국제 인권 전문가들은 27일 연세대휴먼리버티센터와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UN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북한 인권유린 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음.
-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유엔 현장사무소 설치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며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를 제소하기 위해 유엔이 사무소를 개소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에서 상징적·심리적으로 매우 큰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함.

#### ■ 北 인권문제 이슈로…한미 당국자 포함 ‘현인그룹’ 출범(연합뉴스)

-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하기 위해 북한인권 ‘현인(賢人) 그룹’이 출범함.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연세대 교수)와 로버트 킹 미국 북한 인권 특사를 비롯한 북한 인권문제 권위자들이 참여하는 ‘현인그룹’의 창립행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열림.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비딧 문다폰 전 특별보고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소냐 비셰르코 전 COI 위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등도 참여함.
- 현인그룹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임기 종료일을 고려해 다음달 1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임. 이들은 매년 2~3회 서울, 뉴욕, 제네바 등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유엔과 주요국에 권고할 방침임.

#### ■ 北 해외노동자, 방화복 없어 용접 중 불에 타 숨지기도(연합뉴스)

- “2014년 폴란드의 한 조선소에서 북한 노동자가 방화복 없이 일하다가 불에 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 내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램코 브뢰커(44) 네덜란드 라이덴대 교수는 2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인권 실태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함.
- 브뢰커 교수는 곧 “이들은 하루 12~16시간 일해야 하고 추가 근무수당도 없다”며 “일주일

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생활총회(조직에서 각자의 업무와 생활을 반성하고 상호비판 하는 일)마저 주말근무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함. 또 노동자들은 텔레비전과 인터넷은 물론 냉난방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숙소에서 잠을 자며, 숙소와 일터를 오가는 것 외에 외출은 허용되지 않음. 사실상 현대판 노예인 셈임.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일하는데도 북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수입은 담뱃값 등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짐. 대신 북한 당국은 연간 노동자 1인당 최대 3만5천 달러(약 4천만원)를 챙긴다고 그는 주장함.

- 브뢰커 교수는 “이러한 문제들은 유럽연합(EU)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유럽연합 각국이 자기 나라의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함.

#### ■ 장애 탈북자, 아프리카서 ‘북 인권’ 강연(자유아시아방송)

-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행정수도 프리토리아에서 현지 한인과 아프리카 최고 명문 중 하나인 프리토리아대학(University of Pretoria) 학생 등 100여 명에게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호소함.
- 지 대표는 ‘생생한 증언: 내가 겪은 북한’이라는 강연을 들은 아프리카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해 보람을 느꼈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함. 이들 유학생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정치 지도자가 된다면 북한 주민을 생각하는 올바른 대북 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 대표는 설명함.
- 지 대표는 다음달 8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리토리아,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인접국가인 보츠와나도 방문할 계획인 보츠와나는 2014년 2월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를 담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임.

2016. 6. 29.

#### ■ 러시아 파견 北 노동자, 하루 20시간 노동 강요당해(연합뉴스)

-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당국이 할당된 자금 마련을 위해 하루 20시간 이상 살인적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29일 보도함.
- 현지 소식통은 이 매체에 “현재 북한 건설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평균 300달러(34만8천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매달 (당국에) 상납해야 할 자금은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1천 달러에 달한다”며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야간 건설노동이나 개인별로 청부를 받아 집수리, 인테리어 등 하루 20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다른 현지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이 수중에 쥘 수 있는 월급은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제날짜에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신 정부에 월급을 받았다는 서명만 해놓게

하고 북한에 돌아가기 직전에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 각종 명분으로 월급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임. 이러한 행위가 일반화되면서 처참한 처우에 반항도 못 한 채 분신자살하는 노동자들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함.

#### ■ 폴란드 외교당국자, 北노동자 비자발급 중단…강한 의미 전달(연합뉴스)

- 폴란드 외교 당국자가 폴란드 정부의 북한 노동자 비자 발급 중단 사실을 확인하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인권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밝힘.
- 29일 국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따르면 미하우 코워지에이스키 폴란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센터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올해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함.
-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윤여상 소장은 “폴란드에서 북한 노동자의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폴란드 정부가 이들의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함.

2016. 6. 30.

#### ■ 미국무부, 북한 14년째 인신매매 최악국가 지정(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14년 연속으로 최하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지정함.
- 미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은 2003년 이후 14년째 3등급에 포함됨.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고, 이렇다 할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는 나라들’을 의미함. 북한과 함께 알제리, 미얀마, 김비아, 아이티, 이란, 러시아, 수단, 남수단,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 27개국 이 3등급에 속함.
-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의 근원이 되는 국가(source country)”라고 지적함. 특히 “1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무는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며 “일부 탈북 여성이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에 의해 성노예로 전락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적시함.
- 미 국무부는 그러나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를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 “8만~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며 “강제노동은 체계화된 정치적 억압의 체계”라고 비판함.

-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올해 보고서는 인신매매 방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각국 정부는 비정부기구(NGO) 등과 함께 무고한 시민이 인신매매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 ■ 칠레 인권위원장, 김정은 정권 ICC제소해야(자유아시아방송)

- 칠레의 로레나 프라이즈(Lorena Fries) 칠레 국가인권위원장은 김정은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 인권유린에 대한 대가를 치루도록 해야 한다고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의 산티아고대학 한국학센터가 28일과 29일 개최한 북한 인권과 정치 등에 관한 토론회에서 밝힘.
- 프라이즈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탈북여성 이애란 박사의 참혹한 북한 여성의 인권 침해와 정치범 수용소 실태 그리고 공개처형 목격담 등을 듣고 이 같이 말함.
- 토론회에는 안드레스 살디바르 전 칠레 상원의장(President of the National Assembly, Senator Andres Zaldivar)과 1960년대 북한에 유학 중 북한 당국의 김일성 우상화에 대한 비판적 발언 때문에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칠레인 에두아르도 무리쵸 우가르테 씨 등이 참석함.

2016. 7. 1.

#### ■ 신임 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오헤아 퀴타나 내정(연합뉴스)

- 지난달 30일(현지시간)로 임기를 마친 마주르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후임으로 토마스 오헤아 퀴타나 전 유엔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이 내정됨.
- 1일 유엔에 따르면 최경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제네바 주재 각국 유엔 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오헤아 퀴타나 전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을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추천함.
- 오헤아 퀴타나 내정자는 이날 폐막하는 제32차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공식 선임됨.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6. 30.

#### ■ 北, 중국 파견 근로자 사상교육 강화(자유아시아방송)

-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탈북이 잇따르면서 북한 당국이 이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RFA) 방송이 30일 보도함.
-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북중 비자 면제 협정’을 이용해 취업을 한다”며 “과거 체류 기간이 끝나가는 노동자들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단동에서 신의주로 넘어갔다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 복귀했는데 최근에는 사흘 정도 머물렀다 들어온다”고 RFA에 전함.

- 그는 이어 “이러한 사상교육은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비롯해 지속 발생하는 해외 노동자들의 탈북 사태를 막기 위한 대응 조치”라고 풀이함.

2016. 7. 1.

■ **北, 남한 형제와 통화한 주민 2명 간첩으로 체포(연합뉴스)**

- 최근 한국과 통화한 주민이 현장에서 간첩으로 국가보위부에 체포됐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1일 보도함.
- 양강도 소식통은 이 매체에 “지난달 4일 양강도의 어느 농장원(농민) 형제가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통화를 하던 중 보위부 반탐(간첩색출 전문) 부서 요원들이 들이닥쳤다”면서 “이 형제는 현장에서 간첩으로 체포됐고, 수갑이 채워져 보위부로 호송(압송)됐다”고 전함.
- 지난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북한 내부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하는 주민을 ‘남조선 간첩’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공안기관에 지시한 바 있음.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6. 26.

■ **홍용표 통일부 장관, 실향민 아픔을 통일의 열망으로(연합뉴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6일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의 아픔을 통일의 열망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힘.
- 홍 장관은 이날 실향민의 복讎 고향 그림을 모아 예술 조형물을 만드는 행사가 열린 서울 KEB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실향민의) 기억에는 그리움, 아픔, 상처, 한이 담겨 있지만 그림을 보존하는 것은 아픔의 기억을 통일의 열망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KEB하나은행의 후원 하에 실향민의 복讎 고향 그림 약 1만5천점을 모아 모자이크 형태의 대형 예술 조형물을 만들어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설치할 계획임. 예술 조형물 제작에는 설치미술가인 강익중 씨가 참가함.

2016. 6. 29.

■ **홍용표, 남북은 인권문제…北, 정치적 접근 탈피해야(연합뉴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9일 6·25 전쟁 이후 발생한 남북자 문제를 인권문제로 규정하고 북한이 정치적 접근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함.
- 홍 장관은 전후 남북자 피해가족 연합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후 남북자 정책



세미나 축사에서 “납북자 문제는 분단의 가장 큰 이쁨 중 하나”라며 “인권의 문제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힘.

- 홍 장관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적 가치가 선행돼야 함을 북한도 알아야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함.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납북자 문제의 체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임.

#### ■ 한국서 북한 억류자 석방 기원 집회 열려(미국의소리)

- 6월27일부터 7월2일까지는 기독교계 통일 관련 시민단체 21곳이 정한 제 2회 북한인권자유통일주간임. 북한인권자유통일주간에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기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
- 28일에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김국기 선교사와 김정옥 선교사, 최춘길 씨 그리고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워비어,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의 석방을 기원하기 위한 집회를 서울 종로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진행함.
- 북한에 억류돼 있는 사람들 중 김정옥 선교사는 중국 단둥에서 대북 선교활동을 하다가 북한에 체포됨. 김정옥 선교사는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그들의 건강도 돌보다가 지난 2013년 10월 북한에 억류됐고, 2014년 5월 30일 북한에서 무기노동교화형 선고를 받음. 김정옥 선교사의 활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주동식 씨도 이번 집회에 참가함.
-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북한이 억류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비인권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함. 북한정의연대 대표인 정베드로 목사 역시 중국 공안에 체포돼 1년 반 동안 중국 교도소에 수감됐던 경험이 있는 만큼, 북한 억류자들의 심경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밝힘.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있지만,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북한 억류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함.
- 집회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북한 억류자들의 상황을 알리며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에 북한 억류자들의 석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함.

2016. 7. 1.

#### ■ 탈북자들 “北수용소 가족들 구제해달라” 법원에 청구(연합뉴스)

- 탈북자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가족들을 구제해달라며 법원에 인신보호를 청구함.
-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탈북자 김모씨 등 6명은 1일 북한 수용소에 있는 가족 20명을



- 구제해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냈.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인신을 구제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임
- 법조계 안팎에선 구제 대상자들이 북한에 수용된 만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건이 각하되지 않겠느냐는 등의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됨.

####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6. 27.

##### ■ 납북자단체, 北역류 납북자 인신구제 청구낼 것(연합뉴스)

- 납북자 가족단체가 북한에 있는 납북자들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를 법원에 내겠다고 밝힘.
- 최성용 납북자기족모임 대표는 27일 “북한에 끌려갔다가 생존이 확인된 일부 납북자들에 대해 조만간 인신구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면서 “2012년 정보당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납북자들의 평양 내 주소를 확인한 만큼 청구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 또다른 탈북자 단체인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회장 최현준)도 북한 수용소에 갇힌 가족들에 대한 인신구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힘.

2016. 6. 28.

##### ■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中 단둥서 북한 女근로자 8명 탈출(연합뉴스)

- 해외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들의 잇따른 탈북사건에 이어 최근 중국 단둥(丹東)의 한 중국기업에서 근무하던 북한 여성근로자들이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옴.
-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 내 대북 소식통을 인용, “중국 단둥의 중국기업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근로자 8명이 지난 25일 탈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 김 대표는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발해 해외로 내보내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없이는 이러한 탈북행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5. 대북지원

2016. 6. 28.

##### ■ 北 양강도 아동 영양실조율 최고...3명중 1명(미국의소리)

- 북한 양강도 지역 아동들이 3명 중 1명 꼴로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28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보도함.

- WFP는 지난 27일 발표한 '북한 지원사업 보고서'에서 "양강도 지역 탁아소 어린이의 32%가 영양실조 및 발육부진 상태로 나타났다"며 "이는 북한 8개 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힘.
- 한편 WFP는 다음 달부터 2년 6개월간 북한 주민 170만 명 대상의 새로운 영양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WFP는 이를 위해 1억2천600만 달러(1천490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힘.

## 2016. 6. 29.

### ■ WFP, 北 170만 명에 식량지원 계획 승인(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주 로마 본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북한 주민 170만 명에 식량을 지원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지원계획을 승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WFP 대변인은 "오는 7월 1일부터 이사회가 승인한 신규 지원사업이 시작된다"고 RFA에 전함.
- WFP는 30개월 동안 15만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1억2천590만 달러(1천471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

## 2016. 6. 30.

### ■ 올 상반기 국제사회 대북 지원 60% 증가(미국의소리)

- 올 1월부터 6월 기간 중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총 3천 4백만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 지원을 한 것으로 집계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천1백31만 달러에 비해 60% 가량 증가한 규모임. 또 지난 한 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한 금액보다도 1백만 달러 증가함.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원조국과 국제기구, 민간 구호단체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액을 3천3백만 달러로 집계함. 올 상반기 지원국 수도 지난해에 비해 증가함. 지난해 유엔과 6개 나라가 지원을 한 반면 올해는 유엔과 유럽연합을 비롯해 7개 나라가 지원을 함.
- 올 상반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영양 지원 사업으로, 전체의 70%인 2천4백만 달러를 차지함. 이어 보건 사업에 4백75만 달러, 식수 위생 사업 1백80만 달러가 각각 지원됨.

2016. 7. 1.

■ **북한 첫 농아유치원 개원...독일 NGO 지원(미국의소리)**

- 북한 최초의 농아유치원이 올해 4월 초 개원했다고 독일에 본부를 둔 대북 구호단체 '투게더-함흥'의 로버트 그룬드 대표가 밝힘.
- 세계농아인연맹(WFD)의 북한 연락관이기도 한 그룬드 대표는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개원 당시 3명이 전부였던 농아 어린이가 지금은 20여 명으로 늘었다고 말함. 그룬드 대표에 따르면 '투게더-함흥'과 가톨릭단체, 기부자들의 지원으로 평양 모란봉구역에 건립된 이 유치원에는 교실이 10개 정도 있고, 40여 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음.
- 지난 2008년 설립된 '투게더-함흥'은 청각 장애인 뿐 아니라 시각 장애인들의 교육과 취업도 지원하고 있음.